

# 21세기 환경측정 선두기업 “자신있다” 고가의 최신 측정장비 완비...사무실 확대 등 준비완료

(주)해성환경은 시설과 인력에 관한 투자에 힘입어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측정기관 평가에서 오차율 3% 이내에 드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 오차율은 상당히 고도의 측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최근 새롭게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측정능력은 상당히 강화됐을 것으로 평가된다.

21 세기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하고 그 가운데서도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측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시작은 늦었지만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21세기 최고의 측정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힘있게 새출발 하는 기업이 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17-18 신흥빌딩에 자리하고 있는 (주)해성환경(대표 안교원)은 자가측정대행, 폐수처리 약품제조, 실내환경측정, 환경관리용역대행, VOC 및 악취 기기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일반 측정업체로서는 어려운 분야로 꼽히는 VOC 및 악취 측정장비를 갖추고 실내환경 측정 등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 Interview

인터뷰 / (주)해성환경 안교원 대표이사

### VOC 악취 등 고도의 정밀도 요하는 물질도 측정가능



해성환경의 목표는 “맑고 깨끗한 환경만들기”이다.

안교원 사장은 “21세기는 고도의 산업화를 맞아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는 모든 영역에서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지구환경을 보존해 나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환경오염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자연을 쾌적하고 안락하게 가꾸어 건강한 환경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안 사장은 환경기업 가운데 선두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 단순히 측정업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용역도 수행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시설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폐수처리약품도 신개발에 비중을 두겠다고 밝힌 안 사장은 환경기업으로서 선도기업이 되기 위한 확실하고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

## 최신시설 확충 공격경영

대부분의 측정업체들이 측정업무를 수익이 적게 발생하는 분야라고 판단하고 전체 사업에서 비중을 줄이는데 비해 이 업체는 오히려 최신의 고가 장비를 새롭게 도입하고 사무실을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이 업체가 이렇게 적극적인 경영을 펼치는 이유는 앞으로 환경이 중요하게 부각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측정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러 사업에서의 가능성을 크게 보기 때문이다.

일반 측정업체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의 측정이 가능함으로써 다양한 용역사업의 수행은 물론, 환경영향평가대행업 및 먹는물 측정 사업 등 사업 다각화 및 획기적인 진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도시화와 산업화가 더욱 고도로 진행되면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양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측정해야 할 항목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의 경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측정을 수행하는 기업은 많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측정장비를 형식적으로 갖추었거나 장비가 노후화 되어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등 측정의 질에서는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자가 측정비용이 하락해 이윤율이 저하되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형식적으로 측정하거나 거짓으로 측정할 것처럼 꾸미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80년대 초반부터 환경에 투신한 환경관리인 출신인 안교원 사장은 현장에서 다양한 환경관리 경험과 오염물질 측정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 사장의 측정업에 대한 관점은 “사회가 고도화 되면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 등장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사장은 “앞으로의 환경의 방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 결과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며 “황사에도 많은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단순하게 오염됐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측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이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의 중요성은 크다. 안 사장은 “장비가 아무리 중요해도 인력이 중요하다”며 “인력을 꾸준히 관리하고 교육해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으로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측정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되자 해상환경의 계획도 보다 확대되고 있다. 측정분야에서 선도 기업이 되고 내년에는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실내공기질 관련법이 통과할 경우 관련 항목의 측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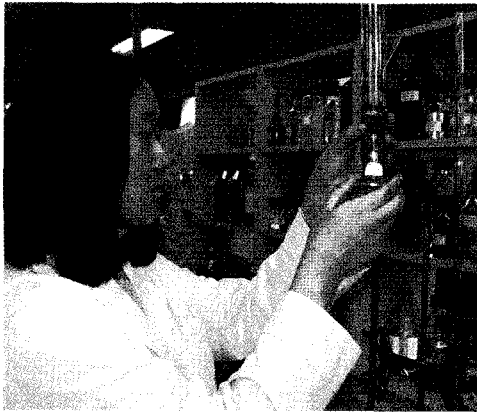
안 사장은 “환경은 영리보다는 공공성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것이 안 사장이 고가의 장비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이다. “현재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업들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안 사장은 “앞으로 측정 수치가 더욱 정밀화되어 갈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해상환경은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바로 이러한 시장 동향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해성환경은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하에서도 장비 및 시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이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국민적인 욕구는 점차 증대할 것이며 그에 따라 법적인 규제도 강화되고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법적인 측정항목이 새롭게 추가될 것이며 이러한 부분을 민간부문에서 소화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이 투자를 할 가장 최적의 시기로 판단하고 있으며, 측정에 있어서도 양적인 경영이 아닌, 질적인 경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에 대한 진단이다.

#### VOC악취물질 측정까지 가능

특히 최근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는 도시의 대기오염의 가중 및 실내오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환경관리의 항목으로 포함되고 있다. 이들 물질은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과 반응해 스모그를



발생시키는 등 여러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주유소나 도장업체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들 물질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이들 항목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측정업체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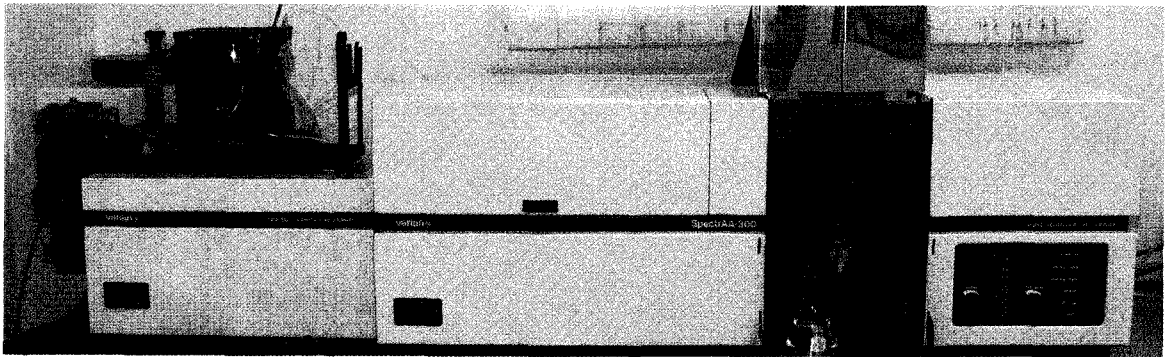
또 이전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규제가 진행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악취나 미관 등 심미적인 요인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악취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이들 항목도 보다 과학적인 측정이 요구되는 분야로 고가의 측정장비가 필요하다.

해성환경은 악취나 VOC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완비하고 본격적인 측정에 나서고 있다. 물론 기존의 자기측정 항목에 대해서도 최첨단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경쟁력 있는 측정을 할 수 있다.

많은 측정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도의 측정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나서고 있는 해성환경은 이러한 전격적인 투자를 통해 21세기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환경 선도기업으로 자리잡기를 바라고 있다. 다다익선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질로써 승부 함으로써 새롭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적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2002년 본격적인 해성환경시대 개막

1996년 7월 창립된 해성환경은 8월에 유독물 알선 판매업을 등록했으며, 9월에는 (주)효성바이오텍과 (주)유천엔비어로 대리점으로 지정되었고, 2001년 12월 (주)해성환경 법인으로 전환한 이래 본격적인 환경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기 시작한다.



2002년 1월에 수질자기측정 대행업, 대기자가 측정대행업,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필증 등록, 유독물판매업 등록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혜성환경의 시대를 열었다.

폐수처리약품으로 시작한 혜성환경은 2002년이 획기적인 전기를 이루는 해로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및 VOC 약취 등을 측정하는 회사로 거듭나게 됐다.

이 업체의 모토가 된 폐수처리약품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난분해성 COD 제거제, 질소·인 제거제, 중금속 제거제, 중균제 등을 취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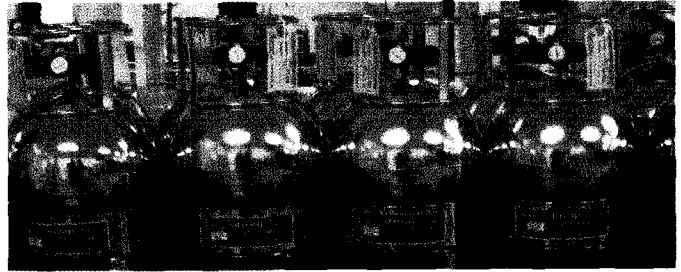
특히 단순히 약품을 판매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직접 제조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화학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폐기물을 원료로 활용해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약품을 생산하는 것도 이 업체의 지속적인 추진과제이다.

혜성환경은 최신 측정장비의 확충과 함께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갈 방침이다. 그것이 바로 "One Call Service!"로 전화 한번으로 환경인의 현장 불편을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이 업체의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수질측정사업 분야에서 △ 공장생산 가동시 발생하는 폐수 △ 음용수, 지표수, 지하수 △ 지질, 토양 △ 폐기물 용출시험 △ 폐유기용제 시험 등을 실시한다.

또 대기측정사업분야로는 △ VOC, 약취 측정 분석 △ 다이옥신 측정 △ 작업환경 측정 등을 수행한다. 약취물질로는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황화메틸, 이황화메틸, 트리메틸아민, 아세트알데히드 등 알려진 대부분의 약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도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틸렌,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아크릴로니트릴, 휘발유, 톨루엔, 스티렌 등 역시 대부분의 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측정이 가능한 것은 일반 민간 측정기업으로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GC/MS/MS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비는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모두 가능한 장비로 정성분석을 위해 GC기를 2대 확보하고 있으며, 검출기도 5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성분이



들어 있는지 모르는 시료의 성분을 알아낼 수도 있다. 이 장비들은 모두 올해 구입한 최신의 장비로 현재로서는 최고 수준의 측정이 가능한 장비들이다. 포름알데히드나 라돈 등을 측정할 수도 있어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내공기질의 측정도 가능하다. 이 업체는 VOC를 측정하는데 필수적인 표준가스인 TO15도 확보하고 있다.

#### 오차율 3%이내 우수한 성적

(주)혜성환경은 시설과 인력에 관한 투자에 힘입어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측정기관 평가에서 오차율 3%이내에 드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 오차율은 상당히 고도의 측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최근 새롭게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측정능력은 상당히 강화됐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측정을 바탕으로 환경관리용역업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것이 혜성환경의 강력한 의지이다.

폐수처리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처리장 운전에 관한 자문 및 보유자료를 제공하고, 생물학적 처리 가능성을 판단하며, 독성물질 적정희석을 결정 또는 전처리 공정을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폐수처리장 시운전을 대행해 시운전 기간을 단축하고 시운전비용을 절감하며, 폐수처리 현장에서의 파일럿 시험을 통해 폐수처리 공정 개선안을 제시하며, 유기물 영양염류 합성 세제 등 환경시료를 분석하고, 폐수처리장 관리자를 교육하는 사업도 전개한다. 또 △ 폐수처리 미생물의 분리, 배양 및 종균공급 △ 기타 미생물학적 실험 전반에 관한 용역 △ 환경관련 연구, 조사, 용역 수행 등도 가능하다.

■ 글·사진/ 환경사업지원부